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 도교육청, 격차해소 앞장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전국 최대... 최근 3년간 29억6000여만원 투입

전북도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지원 예산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지원에 10억7223만원을 썼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광주교육청이 6억7981만원, 대구교육청이 6억2000만원, 충남교육청 5억9850만원, 강원교육청 5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지만 전북교육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서

울,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가정에 컴퓨터를 꾸준히 지원, 소득 격차에 따른 정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지원 규모는 2015년 10억440만5000원, 2016년 8억8568만6000원, 2017년 10억7223만5000원 등 총 29억6232만6000원으로, 연 평균 9억8742만원에 달한다. 경기교육청이 2016년에만 39억9920

만8000원을 지원해 3년간 지원 총액으로는 전북교육청을 앞섰으나, 경기의 경우 2015년과 2017년에는 한푼도 책정하지 않고 단발성 지원에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내년부터 중학교의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사교육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이 축소되면 또 다른 교육 격차 발생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에 컴퓨터를 놔주거나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육복지사업이다. /정해은 기자

김남훈 교수, 신진학술상 영예 복합재료 연구성과 인정받아

전북대학교 김남훈 교수(대학원 BIN융합공학과·사진)가 한국복합재료학회가 주는 신진연구자상을 받았다. 이 상은 40세 이하 연구자 중 복합재료 분야에서 최고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지난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2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년 전북대 대학원 BIN융합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김 교수는 그래핀과 새로운 전이금속 산화물을 이용한 나노 복합재료를 개발하고, 이를 에너지 장치 및 센서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뛰어난 연구 업적을 보여 이 상의 주인공이 됐다.

김 교수는 "이 상은 앞으로 더 좋은 연구, 세계를 이끌어 갈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에너지 저장 기술 연구에 더욱 집중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연구학교 거부는 이기적”

도교육청 “부작용 많다” 시행자체 반대 전북교총, 고교학점제 ‘수구적 태도’ 비판

“국민 간 건강 위해 노력할 터” 대한간학회장에 김대곤 교수

간암·담관암 분야 국내 최고 석학인 전북대학교 김대곤 교수(의학전문대학원·사진)가 대한간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대한간학회는 1981년 창립된 '한국간연구회'를 모태로 1995년 창립돼 1,7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간 분야 국내 최고 학회다. 2012년부터 영문 학회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를 발간하고 있고,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세계 연구 동향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면서 간 질환 분야 연구 발전 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김대곤 교수는 전북대 의대와 동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1986년부터 전북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학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학술발전과 국민 건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전북교총은 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정책이며 대선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면서 “그러나 개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언급하며 시행자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수구적 태도이자 이기적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전북교총이 쓴소리를 낸 것은 도 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총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연구 학교를 지정해 3년간 운영토록 했다.

연구 학교로 지정되면 3년간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의 예산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인권, 본인의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 일치하는 교과목 선택을 통해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강제된 교과목에 의해 상 위권 학생들을 위해 나머지 학생들은 내신평가에서 틀러리로 전락시키고 수업시간이 곧 수면시간이 되는 공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비롯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학교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연구학교는 부작용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학교의 경우 당초 취지를 벗어나 교사들 승진을 위한 도구가 돼 버렸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승진을 노리는 교사들을 제외한 일반교사들은 이 연구학교를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와 라마다전주호텔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전북대 총장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박경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발전 함께해요”... 전북대-라마다전주호텔 맞손

공간 활용·시설 편의 제공 이용요금 할인 등 협약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전주 고사동에 위치한 라마다전주호텔(사장 박경희)과 양 기관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전북대 총장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박경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간 활용과 장소 지원 등에 합의했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과 편의도 제공

키로 했다.

또한 호텔 측은 전북대 구성원들의 호텔 이용 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라마다전주호텔은 올해 4월 전주 고사동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에 330실로 구성돼 있다. /정해은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운서, 박민지)은 휴학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